Symphony No. 2 in C major, Op. 61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2 in C major, Op. 61
작곡가: Robert Schumann (1810–1856)
장르: 4악장 교향곡
작곡 과정: 1845년 말 스케치, 1846년 관현악화와 수정
초연: 1846년 11월 5일, Leipzig Gewandhaus. Felix Mendelssohn 지휘.
초판: 1847년 Leipzig, Friedrich Whistling
헌정: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왕 Oscar I

슈만의 제 2번 교향곡은 출판 번호보다 작곡 과정이 더 복잡한 작품이다. 완성된 교향곡 가운데 작곡 순서로는 세 번째지만, 1847년 인쇄에서 제 2번이 되었다. 1845년 말의 금관 신호와 대위법 연구, 1846년의 건강 불안과 관현악 수정이 네 악장에 축적되고, 마지막 C장조는 앞선 긴장을 통과한 뒤의 밝은 결론으로 놓인다.

작곡 순서와 출판 번호
Schumann은 1845년 12월 말 약 두 주 동안 작품의 스케치를 마련하고, 1846년 대부분을 관현악화와 세부 수정에 썼다. Morgan Library의 자필 총보에는 1악장 1846년 5월 8일, 2악장 9월 14일, 3악장 9월 21 일이라는 기입이 남아 있으며, 4악장은 필사자 Carl Gottschalk가 베낀 뒤 Schumann이 교정했다. 이 날짜는 악장별 작업 시점을 보여 주지만, 전체 작곡의 시작일이나 완성일을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다.

이 곡은 작곡가가 완성한 교향곡 중 세 번째로 구상되었다 . 1841년에 나온 B플랫장조 교향곡이 먼저
출판되었고 , 같은 해의 d단조 교향곡은 훗날 대폭 개정되어 제 4번이 되었다. 그 결과 C장조 교향곡은 1847년 출판 때 제 2번으로 자리 잡았다. Leipzig의 Friedrich Whistling이 총보와 파트를 낸 시점도 작곡 순서와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건강 위기와 대위법의 배경
Schumann은 이 교향곡을 쓰는 동안 청각 이상과 건강 불안을 겪었다. 그는 1845년 Mendelssohn에게 “ 트럼펫과 북 ”이 머릿속에서 울린다고 썼고, 이 짧은 표현은 작품 첫머리의 금관 신호와 연결되어 해석된다. 다만 편지의 내용을 작품 전체의 의학적 자서전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같은 시기에 Schumann과 Clara는 Bach의 `Das wohltemperierte Klavier`와 대위법 교본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2악장 둘째 트리오의 푸가토와 B-A-C-H 음형, 느린 악장의 촘촘한 성부 진행은 이 연구가 교향곡의 형식에 들어온 구체적인 지점이다. 대위법은 감정을 억누르는 장식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큰 구조를 유지하는 작곡 방식으로 기능한다.

소요 시간과 편성

소요 시간: 약 35–40분. BSO와 LA Phil은 약 38분으로 안내하며, 템포와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현악 5부.

목관 각 2대와 호른·트럼펫, 세 대의 트롬본은 고전적인 4악장 틀 안에서 신호와 코랄의 음향을 만든다. 그러나 금관이 늘 전면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현악의 빠른 음형, 목관의 어두운 선율, 대위적으로 겹치는 중간 성부가 서로 다른 밀도를 만들며, 전곡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한다.

네 악장의 진행

I. Sostenuto assai – Allegro, ma non troppo

느린 도입부가 빠른 주부로 이어지는 소나타 형식이다. C장조의 금관 신호는 슈만이 말한 "트럼펫과 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현악과 목관의 대위적 움직임 위에 전곡의 기억을 세운다. 빠른 부분에서는 겹점 리듬과 주제의 방향 전환이 나타나고, 금관의 장중함과 작은 성부들의 응답이 한 악장 안에서 교차한다.

II. Scherzo. Allegro vivace

빠른 현악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스케르초에 두 개의 트리오가 삽입된다. 둘째 트리오의 푸가토에서는 독일식 음명 B플랫–A–C–B(독일어 H)의 음형이 긴 음가로 드러난다고 분석된다. 이 B-A-C-H 모티프는 1845년의 Bach 연구와 연결되지만, 악장 전체를 하나의 암호로 환원하지 않는다. 두 트리오가 스케르초의 속도와 다른 호흡을 만들면서 운동의 표면 아래에 대위법적 질서를 남긴다.

III. Adagio espressivo

C단조로 시작해 E플랫장조로 마무리되는 느린 악장이다. 긴 선율과 어두운 화성, 목관 특히 바순의 음색이 감정의 중심을 이루며, 중간부의 성부 진행은 Bach 연구와 낭만적인 탄식이 만나는 지점을 만든다. 이 악장을 슈만의 "어두운 시기"와 연결하는 해설이 있지만, 음악은 단순한 고통의 기록보다 선율이 길게 버티는 방식으로 내면을 드러낸다.

IV. Allegro molto vivace
빠른 C장조 피날레는 앞선 악장들의 기억을 밝은 에너지 안으로 끌어들인다 . Sydney Symphony의 분석에 따르면 3악장의 주제가 두 번째 주제로 들어오고, Beethoven의 연가곡 An die ferne Geliebte 에서 온
선율이 새로운 재료로 나타난다. 첫 악장의 금관 신호도 다시 들리며, 피날레는 처음의 표지를 더 밝은
맥락으로 바꾼다.

LA Phil이 전하는 “다시 나 자신이 되었다 ”는 표현은 슈만의 후대 회고와 결말의 회복감을 연결하는 해석이다. 이 문장을 작품의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날레의 밝음이 앞선 C단조의 깊이와 대위법을 거친 뒤 얻어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순환 동기와 선율의 기억
첫 악장의 신호는 한 번의 팡파르가 아니라 네 악장을 묶는 기억 장치다. 2악장의 B-A-C-H 음형과 푸가토, 3 악장의 긴 선율, 4악장에 돌아오는 신호와 3악장 주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앞선 음악을 회상한다. 이 관계는 엄격한 단일 주제 변형 체계라기보다 , 대조되는 악장 사이에 기억의 통로를 놓는 순환 구조에 가깝다.

슈만의 건강 문제와 “회복 ”이라는 말은 이런 순환을 설명하는 하나의 독해다. 그러나 곡의 실제 설계는 편지의 심리 상태보다 금관과 현악의 음향, 푸가토의 성부 진행, 조성의 이동에서 확인된다. C장조의 마지막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어두운 중간부와 복잡한 대위법을 통과한 뒤 얻은 형식적 결론이다.

초연과 초기 수용
1846년 11월 5일 Leipzig Gewandhaus에서 Gewandhaus Orchestra가 Felix Mendelssohn의 지휘로 초연했다. 초연 직전까지 관현악이 다듬어졌고 , 11월 16일 재연 뒤 Schumann이 작품에 “많은 기쁨과 슬픔 ” 이 있다고 설명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한편 당대 보고 가운데는 첫 반응이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초연 당일의 반응과 이후의 레퍼토리 지위를 같은 판단으로 묶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1844년 말 Schumann 부부가 Dresden으로 옮긴 뒤에도 Leipzig는 초연과 출판의 장소로 남았다. 작품이 Leipzig에서 처음 울렸다는 사실만으로 작곡 전 과정을 그 도시에 귀속할 수는 없다. 헌정 대상인 Oscar I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왕으로 기록되며, 정치적 의미나 별도의 헌정식은 확인된 범위 밖에 있다.

판본과 연주 관행
Schott의 Robert Schumann New Edition 은 총보와 비평 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자필 ·필사 ·인쇄 자료의 차이를 검토한다. Breitkopf도 Urtext 또는 critical edition과 바람 파트 세트를 제시한다. 현대 판본은 여러 자료를 편집한 결과이므로 , 한 장의 완전한 자필 총보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금관 신호가 두껍게 강조되면 느린 악장의 목관과 현악 호흡이 분리되고, 약화되면 피날레에서 돌아오는
전곡적 표지가 흐려질 수 있다. 작품의 편성과 연주 규모는 “회복 ”을 상징하는 단일 장치가 아니라, 각 악장의 대위와 음향 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주요 자료

Schumann-Portal, 작품 목록
Boston Symphony Orchestra, Schumann Symphony No. 2
Los Angeles Philharmonic, Symphony No. 2
Morgan Library & Museum, 자필 총보
Schott Music, Robert Schumann New Edition
Breitkopf & Härtel, Symphony No. 2
Sydney Symphony, 프로그램 노트
Bach-Archiv Leipzig, 공연 프로그램 Schumann-Portal, Dresden 연대기